



보 도 자 료



(주소) 16614 / 수원시 권선구 서둔로 166 경기상상캠퍼스 생활1980(2층), (재)경기문화재단 예술본부
(전화) 031-231-0845 (팩스) 031-231-0840

배포일: 2025.4.13	쪽수	사진	누리집	자료 문의
경기문화재단, 〈SYMPOIESIS: 서로 만들기〉, 8월 20일 평택시 복합문화공간 공간미학에서 개최	3	6	www.ggcf.kr	부 서: 예술사업팀 연락처: 031-231-0845 담 당: 지민주

경기문화재단, 〈SYMPOIESIS: 서로 만들기〉, 8월 20일 평택시 복합문화공간 공간미학에서 개최

- ▶ ‘심포이에시스(Sympoiesis)’ 개념에서 출발한 동시대 시각예술 기획전
- ▶ 타자와의 관계를 탐구하는 네 명의 작가 참여
- ▶ 복합문화공간 ‘공간미학[米學]’에서 자연과 예술이 만나는 전시 환경 제공

경기도(도지사 김동연)와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유정주),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오는 8월 20일부터 9월 14일까지 평택시 오성면에 위치한 복합문화공간 공간미학[米學]에서 기획전시 〈SYMPOIESIS: 서로 만들기〉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현대 철학자 도나 해러웨이가 제시한 ‘심포이에시스(Sympoiesis, 함께 만들기)’ 개념을 바탕으로, 인간과 비인간 존재가 얹히며 만들어내는 관계를 탐구한다. 기후위기와 생물 다양성 붕괴, 기술과 인간·비인간의 교차와 같은 복합적 난제 속에서 예술이 제안할 수 있는 ‘연결의 방식’을 다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참여 작가는 △동물과 인간의 관계를 관찰하는 김아람, △닿을 수 없는 타인과 사랑의 속성을 탐구하는 무진, △언어와 텍스트의 상관성을 비언어적 방식으로 연구하는 이현화(이원사물), △유기체들의 존재와 변화를 기록하는 장소영 등 총 4명이다. 네 작가는 영상, 회화, 설치, 텍스트일, 사진 등 각기 다른 매체를 통해 타자, 연대, 비인간적 존재와의 감응을 시각 언어로 풀어낸다.

전시는 안정된 합의나 완전한 조화를 제시하지 않는다. 대신 ‘얹히고 – 어긋나고 – 연결되는’ 과정 속에서 드러나는 세계의 호흡을 관람객과 공유하며, 인간 바깥의 다른 존재들과 어떤 미래를 함께 엮어낼 수 있을지를 질문한다.

전시가 열리는 ‘공간미학[米學]’은 기능이 상실된 농업창고의 버섯재배사를 리모델링한 복합

문화공간으로, 지역의 자연환경과 예술이 어우러지는 열린 공간이다. 관람객들은 평택 신리 일대의 농촌 풍경을 배경으로 예술 작품을 경험하며, 일상 속에서 예술이 확장되는 새로운 방식을 체험할 수 있다.

전시 기간 중인 8월 30일 토요일에는 전시 연계 프로그램으로 평택시의 지역적 자연물 재료를 활용한 직조 워크숍을 진행하며 인간 - 비인간 - 장소의 얽힘을 탐구해볼 예정이며, 프로그램 일정 및 참여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문화재단 누리집(www.ggcf.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사진자료]

	
〈SYMPOIESIS: 서로 만들기〉 웹 포스터	
	
이현화(이원사물), 〈우리의 언어〉, 6min 20sec, 2024	장소영, 〈겨울 깃-이름을 알려주세요3〉, 종이에 시아노타입, 30.5x45.5, 2023 장소영, 〈까치〉, 종이에 시아노타입, 30.5x45.5, 2023
	
김아람, 〈박멸의 공존〉, 단채널 영상, 37min 28sec, 2023	무진, 〈당신의 성장을 지켜보는 일〉, 캔버스에 그라운드, 아크릴, 오일파스텔, 2024